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

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

연번	내용
1	A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40세 K씨(여)는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65만 원을 부담하였다. 11월부터는 담췌관(일반) MRI 금액(32만 원)의 본인부담률 60% 수준인 19만 원(46만 원 경감)만 부담하면 된다.
2	55세 L씨(남)는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되어 B종합병원 외래에서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5만 원을 부담하였다. 11월부터는 간(조영제) MRI 금액(41만 원)의 본인부담률 50%인 21만 원(34만 원 경감)만 부담하면 된다.
3	1년 전 간 이형성결절을 진단받은 후 D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P씨(남)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73만 원을 부담하였다. 11월부터는 간(조영제) MRI 금액(43만 원)의 본인부담률 60%인 26만 원(47만 원 경감)만 부담하면 된다.
4	2년 전 췌장낭성종양을 진단받은 후 E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54세 L씨(여)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7만 원을 부담하였다. 11월부터는 췌장(조영제) MRI 금액(41만 원)의 본인부담률 50%인 21만 원(36만 원 경감)만 부담하면 된다.
5	45세 K씨(남)는 F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초음파검사 상 허혈성 심부전이 확인되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5만 원을 부담하였다. 11월부터는 심장(조영제) MRI 금액(63만 원)의 본인부담률 60% 수준인 38만 원(47만 원 경감)만 부담하면 된다.
6	폐에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 G종합병원에 입원한 38세 P씨(여)는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70만 원을 부담하였다. 11월부터는 흉부(조영제) MRI 금액(42만 원)의 본인부담률 50% 수준인 21만 원(49만 원 경감)만 부담하면 된다.

* MRI 장비의 해상도가 1.5이상~3.0미만 테슬라(전체 장비의 72%) 기준으로 작성된 보험가격으로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가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.
* 기타 제반비용(조영제, 영상전송시스템 비용 등)은 보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.